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Krystyna Wieszczyk

볼로냐 대학교 University of Bologna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Ignatianum Academy in Cracow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The Migrant Heiresses of Négritude: Illustrations from Shailja Patel’s Migrant and Nadifa Mohamed’s Black Mamba Boy”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펠라 베나베드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펠라 베나베드 Fella Benabed는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영어권 세계문학에 대한 탈식민적, 생태학적, 서사적, 그리고 의료적 접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루이빌 대학 소재 현대미국문학연구소 연구그룹에, 2021년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폴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참여했습니다. 베나베드는 이주를 다룬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Celebration/Subversion of French Assimilation: A Contrapuntal Analysis of Zebda’s Art,” *Rupkatha Journal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umanities*; “Marine Heterotopia and Odyssean Nomadism in Malika Mokeddem’s *N’zi*”,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Liquid Modernity and Fluid Identity in Caryl Phillips’s *Counter Travelogue The Atlantic Sound*”, *The Lincoln Humanities Journal: Travel Narratives and Life Writing*. 또한 남부 덴마크 대학에서 “Migration and Dementia in David Chariandy’s *Soucouyant: A Novel of Forgetting*”을, 그리고 베를린의 마르크 블로흐센터에서 “Bridging the Self/Other Divide: A Postcolonial Reflection on ‘Beur Music’” 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둔다. 폴란드·영국·프랑스의 미출간 문서고 자료를 포함한 풍부한 1차 자료를 근거로 본 논문은 폴란드인의 이주가 가진 정치적 의의와 이주자의 문화 활동, 특히 문학 번역과 보급의 문제를 탐구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선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점령이었다. 많은 공무원, 군인, 실항민, 최후의 순간 폴란드를 빠져나온 난민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구에 남기로 결정했다. 많은 경우 이는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저항의 몸짓이자 이들이 목도한 동구의 공격과 서구의 공모를 증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 중에는 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상당수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민족문화의 수호자로 여겼다. 이들은 소련의 점령으로 훼손되지 않은 민족문화를 후일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런던의 구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은 “망명 국가” 건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특히 파리의 <쿨투라>지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그들의 삶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자 여론을 형성하는 이 두 중심지 모두 문학을 자신의 사명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해외 작품들을 번역·출판하는 한편 이를 공산당 치하의 폴란드에도 보급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많은 경우 국제적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 냉전기금의 은밀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본 논문은 이주자들의 문화적 산물이 어떻게 민족문화에 기여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는 공산당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별도의 분야였지만 공식 경로와 비밀 경로를 통해 철의 장막 배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된 이주자 지위가 보다 영구적인 거주로 변화하고 보다 젊은 망명자 세대가 선배들의 전철을 따르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주 연구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

이주는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이주로 인한 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났으며 이는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일어난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4부로 나뉜다. ① 맥락: 이주 연구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 디아스포라, ②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③ 이주 자체와 이주자의 문화적 활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 ④ 문학 번역과 보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련의 선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새로운 점령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주는 이들 ‘망명자^{exile}’나 ‘이주자^{émigré}’의 많은 문화적·정치적 행위가 그러하듯 많은 경우 정치적 행위였다. 본 논문에서 ‘망명자’와 ‘이주자’라는 용어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될 것이다. 사실 학계와 행정부에 두루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폴란드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폴란드 이주 연구에서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Lesińska). 본 논문은 이주 및 문학 번역과 수용으로 이루어진 관련 문화 활동에 관한 질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당시의 출판물(이주자 출판물, 비밀 출판물, 공식 공산당 출판물)과 더불어 폴란드·영국·프랑스의 출간·미출간 문서고 자료 등의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많은 연구소와 저널, 도서 출간에서 드러나듯 이주 및 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현재 진행 중인 기타 분쟁과 더불어

분명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주 연구 분야는 태생적으로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정치, 법률, 역사, 사회학, 문화 등의 분과를 가로지른다. 따라서 이주와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뉴욕 이주연구센터(Centre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의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옥스포드가 설립한 *Refugee Survey Quarterly*, 라우틀리지(Routledge) 출판사의 *Ethnic and Racial Studie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Diaspora Studies*, 보다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초점을 제공하는 *Migration Studies* 등의 저널은 이미 이러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망명 정치를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예. 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내의 다양한 유럽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콘웨이(Conway)와 고트비치(Gotovitch)의 연구) 이에 못지않게 문화와 이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 또한 있어 왔다(예. *Crossings: Journal of Migration & Culture*). 현재 59권까지 발행된 라우틀리지 시리즈 'Studies in Migration and Diaspora' 역시 이주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예. 골드(Gold)와 노윈(Nawyn)의 연구).

폴란드 학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의 주요 대학인 바르샤바대학교와 크라쿠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교는 각각 폴란드 이주연구센터(Polish Centre of Migration Research)와 미국학 및 폴란드 디아스포라 연구소(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and Polish Diaspora)라는 이름의 이주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 편집진을 보유한 저널들도 있다. 일부 저널들은 일반적이면서도 많은 경우 현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야기엘론스키대학교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이주연구위원회가 공동 발행하는 *A Review of the Polish Diaspora*나 그디니아의 이주 박물관이 발행하는 *The Polish Migration Review*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저널들도 있다. 바르샤바 연구센터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주, 또는 해당 지역을 드나드는 이주의 문제를 다루는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igration Review*나 야기엘론스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Ad Americam: Journal of American Studies*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후 정치 망명자와 그들의 정치적·문화적 유산 등 공산주의 체제에서 환영받지 못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견·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폴란드 디아스포라』(*The Polish Diaspora*) (발라세크 Walaszek) 및 『제2의 대이주 1945~1990』(*The Second Great Emigration 1945-1990*) (프리슈케 Friszke, 마흐체비치 Machcewicz, 하비엘스키 Habielski)와 같은 책들은 여전히 매우 포괄적인 지식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폴란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폴란드인 정착촌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제2의 대이주 1945~1990』는 이주자의 정치·사회·문화 생활과 국제정치 참여를 다루고 있다. 토루니의 폴란드 이주 기록보관소(Archives of Polish Emigration)는 많은 저명한 폴란드 망명자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저널 *Archives of Emigration*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파리의 출판사 쿨투라 리터러리 인스티튜트(Kultura Literary Institute) 현상을 비롯해 이주자 활동을 다룬 신간들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 분야 연구의 진전은 종종 전후 폴란드 이주자들의 문화 활동 — 많은 경우 이러한 활동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 이라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미 CIA가 재정을 지원하고 소비에트 점령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서보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예. Reisch, Sowiński), 폴란드 공산당 검열에 관한 연구(Budrowska, Gardocki), 폴란드 비밀 출판사업 — 이는 많은 경우 이주자 협력자의 지원을 받았다 — 에 관한 연구(Zlatkes)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이주의 정치적 의의

많은 폴란드인들은 ‘우리가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가’는 문제에 직면했다. 더러는 고향이 더 이상 폴란드 국경 내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가 폴란드를 떠나야 하는가?’ 일부 폴란드인들은 강제 송환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소비에트 점령 지역 내에 있던 이들이 그러했다. 이 지역 내 소련 이외의 다른 점령 세력들은 탈출하는 이들을 체포해 소련 당국에 넘겼다. 하지만 전쟁 말기와 종전 직후인 최후의 순간에 소련이 점령한 나라를 가까스로 빠져 나오는 데 성공한 일부 난민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폴란드인들 중 전쟁 이후 서구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이들은 약 5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Machewicz). 여기에는 소비에트 영토로 망명한 이들은 빠져 있다.

많은 이주자들에게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당연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적군과 소비에트 비밀기관의 지원 속에서 구축되고 있었던 비민주적 체제 하에서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복수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언론, 서한, 회고록, 다양한 공식 문서는 많은 경우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음을 가리킨다. 전전 폴란드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 프랑스 및 영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공격해 왔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지만 이는 수개월 동안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망명길에 올랐다. 독일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폴란드가 함락된 이후 망명 정부는 프랑스가 동맹국의 대독 군사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프랑스 내에서 폴란드군을 재편했다. 프랑스 함락

이후 정부는 군대의 일부를 빼내 영국으로 갔다. 많은 민간인들이 뒤따랐다. 망명정부는 런던이 자신의 장기 거처가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영국이 폴란드 해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서구 내에서 성장을 거듭한 폴란드군은 전쟁 내내 연합국의 대의가 자신의 대의라는 신념에 따라 영국의 지휘 하에 있던 많은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영국의 전시 검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예컨대, 전쟁 전 평판이 높았던 Wiadomości를 비롯해 스탈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한 몇몇 유명 폴란드 잡지들은 영국 내 발행이 금지되었다^(Swiderska). 전쟁 이후 출판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소련의 영향권에 두어 영토의 거의 절반을 소련에 병합하도록 허용하고 — 이는 더욱 광범위한 실상으로 이어졌다 — 스탈린이 바르샤바에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묵인했음을 알게 된 이후의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증언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뒤따르는 이주와 귀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서구에 남기로 결정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 비민주적 정치 현실이 유지될 수는 없으니 자신들이 곧 자유 폴란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군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들 중에는 곧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폴란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상황이 변할 거라 예상한 이들도 있었다. 대개는 본국 귀환을 장려하고 때로는 이를 압박했음에도 군에 몸담았던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 및 그 식민지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실제 많은 이들이 폴란드로 돌아갔지만 후시 모를 3차 세계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비할 요량으로 서유럽에 남은 이들도 많았다. 당시 소집해제된 폴란드군 지휘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 행정부와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 점령국도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예. 육군 장교 차르네츠키Czarnecki 또는 자치민스크Zacmiski의 최신 연구).

많은 재외 폴란드인들은 민주적인 서구 연합국들이 이러한 법과 민주적 규칙의 명백한 위반을 수용했음을 알고 경악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망명지에 남기로 한 결정은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의 몸짓으로 여겨졌다. 민주적 서구에 거주하는 것은 동유럽의 공격과 서유럽의 공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점령된 국가로 가는 것이 해외 열강이 부과한 새로운 모습의 폴란드와 그 정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특히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주로 스탈린이 뽑은 인사들로 구성된 행정부를 위해 폴란드 망명정부를 해산시켰다. 비록 분열되었으나 그들은 자유 폴란드의 합법적 대표자임을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스탈린 권력 아래에 둔 전시 및 전후의 협약을 그것의 모든 비민주적 결과들과 더불어 거부했다. 그들은 폴란드의 중요 유산이 있는 리비프와 빌뉴스 시의 반환 및 소련군의 폴란드 영토 철수, 또 제약 없는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폴란드의 전직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자유 폴란드, 따라서 진정한 폴란드를 대표하는 양 행동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전후 폴란드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대통령 휘장을 물려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성명과 항의서를 발송하는 등 그들은 가능한 수단을 통해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다. 요컨대, 그들은 폴란드의 운명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폴란드의 대의가 망각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스스로를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로 가장 강력하게 동일시한 이들은 아마도 이처럼 런던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현실 및 독립 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서구에 남은 사람들 역시 구 망명정부 관계자들 못지않게 독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 서구의 민주국가에 남는다는 것은 소련 체제의 방해 없이 국제 정치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러한 활동이 당연히 구 망명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당성 주장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가능한 건 아니다. 여기서 더 큰 성공을 거둔 다른 이주자나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그의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망명하여 미 대통령의 고문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다(Machcewicz도 참조). 폴란드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런던의 '불굴의' 태도보다 '실용적인' 이러한 관점은 또한 잡지 <쿨투라Kultura>지의 동인들에 의해서도 전파되었다. 쿨투라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잡지는 파리에서 간행된 폴란드 문화·정치 월간지였다. 잡지는 리터러리 인스티튜트Literary Institute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이곳은 도서 출판 사업도 병행했다. <쿨투라>지와 리터러리 인스티튜트는 모두 예지기에드روی치Jerzy Giedroyc와 조피아 헤르츠Zofia Hertz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종전과 함께 폴란드군의 상당 병력이 해산되었던 로마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그들이 서구에 남는 것 역시 점령된 조국에서보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폴란드의 새로운 현실, 또 리비프와 빌뉴스의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평화적 미래 건설의 토대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그들은 또한 철의 장막 너머의 사고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오랜 활동 기간을 통해 그들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도적 지식인을 끌어들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쿨투라>지 전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모든 활동과 관련해 폴란드 망명 지식인들에게는 그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리 오래지 않은 모델이 있었다. 그것은 이웃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리시아에 의해 폴란드가 분할된 시기였던 19세기의 독립주의 망명자 '전통'이었다. 선도적인 정치·문화 인사들이 망명지, 특히 프랑스나 영국, 또는 미국으로 잇따라 들어오면서 — 소위 '민족 시인'이었던 아담 미츠키에비치(Adam Mickiewicz)와 율리우스 스워바츠키(Juliusz Słowacki, 혹은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Frederic Chopin)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 이 현상은 대이주(Great Emigration)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폴란드 독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들 지식인 중 많은 이들이 민족의 자유와 민족 간 연대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일부는 유럽의 혁명적 사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 이주자들은 이미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 정치단체를 발견했으며 또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군단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당시에는 이미 정치·철학·문학 분야의 여러 잡지와 출판물들이 간행되고 있었으며 이주자로 구성된 밀사들은 비밀 정치·교육 활동을 고취하였다. 독립 국가로서의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회복되었다. 때로는 이주자들이 해외에서 '폴란드 독립을 쟁취'했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Wrąga, 143). 이렇게 19세기의 독립주의적 망명 '전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많은 망명자들에게 가슴 아픈 연속성의 감각이 아니라 힘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소련 점령국을 빠져나온 전후의 많은 이주자들에게 서구에 머문다는 것이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합국 정부들이 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려 했을 때 이제 물러나게 된 폴란드 정부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독일이 베네룩스 3국을 침공함으로써 가까 전쟁을 끝낸 직후였던 1940년 5월에 새롭게 선출된 영국 총리의 연설을 환기하며 폴란드 정부의 연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억은 조국이 백척간두의 위협에 처했을 때 처칠 총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께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이들은 고국에서 경찰국가의 잔인한 현실과 싸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유세계에 남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될 것입니다”(Government 131-132).

이주자 문화 활동의 정치적 의의

망명 외교관으로서 정보관과 기자로도 활동했던 한 인사는 1945년 발행된 〈폴란드 망명자들의 역할과 책무(The Role and Tasks of Polish Exiles)〉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가 “고국으로 돌아가 가장 힘든 최악의 여건에서도 온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폴란드 시민들이 망명지에 남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Wrąga, 142). 이러한 행동의 최우선 목적이 독립의 회복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1차 목적에는 몇 가지 세부 목표가 수반되었다. 상기한 소책자는 이러한 목표 중 일부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주자의 책무는 [...] 폴란드의 국가적 지위, 폴란드의 정치적 주권, 폴란드의 정신적 독립, 폴란드의 정치사회 사상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적대적 정치 세력의 점령 하에 있는 폴란드 사회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Wrąga 142-143).

따라서 한 가지 목표는 민주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폴란드 민족문화의 연속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로 다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회 부문을 충족시킬 활동이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유대를 유지하고 공동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대중적 기회가 필

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노력을 자극할 필요도 있었다. 더욱이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도 요하는 일이었다. 대다수 서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의 수도였던 런던에서만 다양한 부문의 이주자 공동체를 물질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수많은 문화·종교·사회 기관이 신설되었다. 여기에는 1939년 설립된 폴리스 하스(Polish Hearth)와 1960년대 설립된 폴란드 사회문화협회(Polish Social and Cultural Association(POSK))와 더불어 퇴역군인회, 직업 협회, 문화 협회 등이 포함되었다. 폴란드 교회 또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많은 경우 이주자 상태가 일시적이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언어 및 애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어 학교와 기타 교육 활동 역시 제공되었다.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는 폴란드에 관한 학술조사와 연구가 소련의 금지에 방해받지 않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관에는 재외 폴란드대학교(Polish University Abroad(PUNO)), 폴란드 유니버시티 칼리지(Polish University College), 재외 폴란드 과학과 과학자들을 보살피고 폴란드 학생의 영국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폴란드 연구센터(Polish Research Centre), 폴란드 연구소 및 시코르스키 박물관(Polish Institute and Sikorski Museum), 전쟁 전 바르샤바 소재의 근현대사 연구 기관을 계승한 피우스트스키 연구소(Piłsudski Institute)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각국의 폴란드 단체들과 국제 연합체들을 통합한 상위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1946년에는 브뤼셀에서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ZPUW)이 결성되어 폴란드 실향민 단체들을 통합하였다. 또 1944년 결성된 재미 폴란드 의회(Polish American Congress)는 2차 세계대전의 '신구' 이주자들을 통합하였다.

문화적·사회적·교육적 사안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모두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내외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대내적으로 이들 단체는 공동체 융합 및 문화·전통·민족적 정체성 보존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민족 문화의 연속성 유지에 결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과 같은 단체의 성격은 비정치적이었지만 — 이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망명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여전히 그것의 기본 전제는 처음부터 당파적인 것, 즉 폴란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주의 이주자들'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이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주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예컨대, 2,5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상기한 재미 폴란드 의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했으며 이들이 6백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과 그들의 후손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단체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외적으로 이들 단체와 기관은 폴란드의 문화 및 폴란드 정치 상황에 관한 지식을 증진함으로써 그 대의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 국가가 후원하는 담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1956년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와 불가닌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 정부와 여러 협회들은 시위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소련 점령국에서 온 2만 이주자들은 전 세계 대중들에게 폴란드의 실상과 필요한 개입을 환기했다. 정치적 망명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교육 활동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활동들은 점령된 조국과 나란히 폴란드 바깥의 폴란드, 즉 자체의 헌법기관, 지역사회, 군대, 문화를 갖춘 망명지 국가를 보존하겠다는 이념으로 수렴되었다. 많은 경우 문화의 연속성 보존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련 침공자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해외에서 폴란드 문화와 사상을 지키는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렇게 보존된 망명지 국가는 폴란드가 다시 자유를 얻을 때

그대로 접목될 것이었다. 예컨대, 런던에 기반한 재외 폴란드 작가연맹 Union of Polish Writers Abroad은 1956년 해빙의 분수령 이후에도 철의 장막 뒤에서는 출판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굴의’ 런던이 조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고색장연하고 앞뒤 없는 보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경쟁적인 두 곳의 여론 형성 중심지 중 하나였던 ‘실용적’ 〈쿨투라〉지의 정치 대변인은 1952년 이렇게 적었다.

영구적 비상사태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할 시점도 아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 살아남는다는 건 저 ‘언약궤’를 자유 조국에 전달하는 걸 의미한다. 이주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우리 수중에 기탁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망명지를 떠나 이 ‘언약궤’와 함께 귀환하게 될 때 조국은 우리를 쫓을 들어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화이다. (Mieroszewski 1952, 4)

〈쿨투라〉지는 이주 경험이 비상상태이자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건설적 활동을 제약하고 열의 없는 무대책과 완전한 정치적 진부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독립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해외에서 살아가는 존재 근거이고 후일을 위해 폴란드 밖에서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과 폴란드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거의 만장일치의 책임감이 여기에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런던과 달리 파리의 〈쿨투라〉지는 처음부터 철의 장막에 의해 단절된 사회와의 접촉을 추구했다. 그들의 존재 근거는 서유럽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으로

철의 장막 양쪽에서 지적 토론을 자극하고 정치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문학 번역과 보급의 정치적 의의

다시 1943년 중반으로 돌아가자면 스탈린은 서유럽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 대한 힘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련의 이해와 상충하는 폴란드 이해관계를 주제로 한 지상토론은 점점 연합국의 검열에 직면하게 되었다. 윈스턴 처칠 정부의 영국 전시 정보부 장관이 하원에서 정확히 “폴란드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신문이 있다”(Bracken)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였다. 당시 이 말은 “두 명의 폴란드인이 사막에서 만나 처음 하는 일은 신문을 세우는 것”(Zbyszewski)이라는 식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폴란드 공동체에 기억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판본이든 이는 당시의 폴란드 활동가들에게 글로 쓰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지적인 대로 이들 활동가는 전통적 정치노선뿐만 아니라 1941년의 폴란드-러시아(시코르스키-마이스키) 협정, 알타협정과 영토 상실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이주자, 망명정부, 해산된 군대의 역할에 대한 입장, 공산국가와의 접촉 또는 귀환과 같은 수용가능한 협상, 폴란드 내 출판, 재원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출판사업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하고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 및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탁월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압도적인 의견일치를 보였다. 거의 모든 정당, 그리고 각 대륙에서 활동한 많은 협회와 단체가 신문을 발행했다. 또 이는

도서 출간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합하고 그들의 여론을 형성했다.

정치적 상황이 저자, 출판사, 유통사, 독자들의 일상생활을 그토록 강력하게 애워쌌다는 사실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는 비록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도서의 출간 역시 정치적 차원을 떠났다는 것이다. 예술적이거나 철학적인 미덕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로 인해 출판 및 보급용 작품이 선정될 위험은 매우 높았다. 1956년 <쿨투라>지의 편집자 기에드로 이치^(1946a, 172)는 서유럽으로 망명한 외교관이자 장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Czesław Miłosz}에게 “도서 출간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저 정치활동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번역 문학은 폴란드 독립 회복이라는 대의에 딸린 목표에도 복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외국 문학은 민주적 전통과 정신적 독립의 보존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것은 그들의 조국을 지배하고 있던 적대적 정치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1947), <1984>, 알베르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The Rebel}(1958),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책(1970년대)과 같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구 문학작품의 번역에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망명정부 기관에 의해 출간된 <동물농장>은 물자가 부족했던 당시 유일하게 외국 제목을 달고서도 5천부에 달하는 인쇄부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에서 발행된 초판보다 많은 부수였다^(World League, Wiadomości, Wierzbianski). 기에드로이치는 곧장 번역 출간에 착수했다. 그의 초기 비전에는 <쿨투라>지 창간호(1946)에서부터 홍보된 아서 쿠퍼러의 <한낮의 어둠>과 조지 오웰 산문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에드로이치는 1947년의 첫 몇 달을 이들 작품을 인쇄하는 데 쏟았다. 두 사업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1954년 폴란드에서 발행된 한 기관지를 통해 <쿨투라>지에

연재된 <한낮의 어둠>(1950)과 오웰의 <1984>(1953)가 폴란드에서 은밀하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번역 작품의 발행인이 자신이 느낀 만족감을 그의 협력자와 공유했을 때 이러한 노력에 깃든 정치적 가치는 분명해졌다.

해외의 주요 폴란드 출판사들은 미국 냉전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CIA가 비밀리에 후원한 무료 인쇄·배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도서, 잡지, 번역 작품을 출간했다. 현대 영미시선이든^(Mayewski), 아니면 어학사전과 교재이든 미국 정부와 CIA의 관여는 그들의 후원 하에 출판되거나 보급된 정치적으로 가장 무해한 출간물에서조차 정치적 태도를 입혔다. 이들 도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서구지향적 태도를 육성할 희망으로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해외에서 출간된 폴란드 출신 저자만큼이나 조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대 체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강력한 타격이 되었던 것은 망명 후에 체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리는 작품을 서구에서 발표한 저자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이다. 폴란드를 떠난 그는 스탈린주의에 매혹된 지식인들을 혹평하는 문학평론집 <사로잡힌 정신>^{The Captive Mind}(1953)을 저술했다. 이 책은 곧장 영어로 번역되어 서구의 냉전 선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비견할만한 효과를 가진 것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저자들의 해외 출간이었다. 이 중에는 폴란드 내에서 정식 발행이 금지된 저자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이단의 낙인이 찍혀 있었으며 이들의 작품을 해외에서 출간하겠다는 결정은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고유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다채로운 풍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스테판 키시엘레프스키^{Stefan Kisielewski}는 이러한 위험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이들 중 하나였다.

검열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해외 출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인정하듯 타고나 소설가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후대를 위해 현 체제 하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의 첫 소설은 1967년 <쿨투라>지를 통해 가명으로 해외에서 발표되었다. 한 공산당 검열관이 주장하듯 당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당 기관들의 역학, 내부적·개인적·부문간 정치게임의 방법"(*Censor* 127) 등을 폭로했으며 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통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활동들이 전개되었다.¹⁾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권 국가와 일부 이주자 모임들이 의도했던 장벽에는 사실상 많은 구멍이 있었다. 예컨대, CIA의 도서보급사업은 우편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성공적으로 다양한 서적을 발송했으며 방문자들은 서유럽에 산재한 보급지점을 통해 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이 다수의 출판사, 우편발송인, 배포자, 수령 기관과 개인의 일상분란한 활동에 의존했으며 알리바이를 제공한 이주자 단체, 서점, 도서관 등의 기존 체계를 빈번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주자들 역시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인쇄물은 도서보급사업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철의 장막을 오갔다. 여기에는 우편이나 여행용 가방은 아니지만 외교행낭, 차량 내 비밀 칸, 인도주의 구호식품 통조림 등의 더욱 기발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예. Giedroyc 1953, *Kultura*).²⁾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시도들은 추적하거나 계량화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프로그램은 기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1991년 종료될 때까지 미국의 도서보급사업은 약 천만 부의 도서를 동구권에 보급했으며 이 중 4백만 부는 폴란드에 배포되었다(Rudzki, 218). 체제가 급하는 서적을 철의 장막 너머로 보급하는 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취해진 행동에 다름 아니었다.

CIA 프로그램에서 보급지점의 하나로 기능했던 곳은 런던의 폴란드

도서관이었다. 보급지점들은 배포 보고서를 기록해야 했으며 이렇게 보존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배포된 책의 제목, 배포일자, 수령자에 관한 일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74년 9월 10일자 애덤 산다우에르(Adam Sandauer)의 방문 기록에는 '교수의 아들'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저명한 공산주의 언론인이자 비평가의 아들이 체제가 반기지 않는 일련의 서적을 가져갔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경권대 그는 이 책들을 폴란드 내로 밀반입했을 것이다(POSK a.).³⁾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방문자들은 많은 책들을 가져갔지만 일부는 몇 안 되는 책만을 가져갔다. 또 앞서 가져간 책을 반환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는 국경 너머로 반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작품을 일부 포함하여 16권이라는 상당량의 책을 가져간 바르샤바 의과대학의 방문자처럼 특별한 밀반입 계획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 경유 - 책은 스웨덴 사람들이 반입할 것임"(POSK a. b. c. d.).⁴⁾

이 배포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문학 번역과 보급이 독립의 회복이라는 대의와 이에 수반되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또 활동가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을 경유해 책을 반입하려 했던 학생들이 폴란드어로 번역된 문학작품(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와 오웰의 책들)과 별개로 폴란드 저자들의 책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서구로 이주한 이들로 여기에는 소련 수용소의 생존자(구스타프 헤를링-그루진스키(Gustaw Herling-Grudziński)나 베아타 오베르틴스카(Beata Obertyńska), 런던 서클이 지키고자 했을 법한 애국적·종교적 이상을 파괴한 인습타파적 저자(비톨트 고프로브치(Witold Gombrowicz), 체제가 그의 서구 망명을 크게 체감했을 또 다른 저자(마렉 흐와스코(Marek Hłasko))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상기한 풍자 언론인 키시엘레프스키

(일명 스탈린스키^{Stalinski})와 같이 국내 저술가들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고서는 또한 런던에 기반한 — 따라서 공산당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 문헌학자이자 비평가인 다닐레비초바 Danilewiczowa가 폴란드어로 쓴 〈영국 작가의 초상^{Portraits of English Writers}〉처럼 해외 작가에 관한 짧은 글조차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지하 출판물의 제작 여건과 품질, 그리고 부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성인 인구 중 26%가 1980년대 지하 출판물을 일부 접했으며 11%는 지속적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7백만 명과 3백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Mielczarek 2006, 21-22; 2014, 370, 372-374.) 5) 비밀 활동가들이 발행하고 보급한 것에는 원본 작품 뿐만 아니라 이주자 및 해외 저자 출판물의 사본도 포함되었다. 이주자들이 저술한 많은 도서들이 비밀리에 사본으로 제작될 것이었다. 요컨대, 지하 베스트셀러였던 서구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은 번역과 도서 출간의 정치화된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당시 최고의 저자들에는 직접적인 정치적 성격은 없지만 매우 인습타파적인 이주자 저자로서 말년에 출간된 일기로 유명한 고프로비치, 소련 수용소 생존자로서 이후 서유럽으로 이주한 헤틀링-그루진스키, 영국의 오웰이자 〈사로 잡힌 정신〉을 쓴 미워시, 〈수용소 군도〉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아서 웨슬러, 그리고 국내 저자로서 〈작은 묵시록^{A Minor Apocalypse}〉을 쓴 타데우시 콘비츠키^{Tadeusz Konwicki} 등이 포진하였다. 지하 출간과 보급은 많은 경우 이주자들의 활동과 결합되었으며 국경을 가로질러 인쇄·출판·재정 조달·밀반입의 완전한 협업 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인쇄물, 기금, 인쇄 장비 등은 CIA의 도서보급사업과 병행하였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이 스웨덴을 경유한 출판물 밀반입 사례는 데탕트 시기 스웨덴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연락선 노선이 개방되고 이것이 밀반입 통로로 활용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원고가 폴란드에서 준비되고 출간은 해외에서 진행된 다음 다시 폴란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폴란드 최초의 비밀 문학잡지인 〈자피스^{Zapis}〉지는 런던의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으로 재출간된 후 많은 사본들이 폴란드로 다시 유입되었다. 이주자 잡지 〈아넥스^{Aneks}〉지처럼 다른 곳에서 출간된 글을 재 수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여러 국가와 언어, 매체를 오가는 매우 복잡한 궤적을 거쳤다. 예컨대, 조지 오웰의 〈1984〉는 런던에서 번역되어 CIA의 보조금을 받은 파리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인쇄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폴란드로 밀반입된 후 지하에서 대량 복사되었다. 〈1984〉가 유통된 다양한 형태 중에는 음성녹음본도 있었다. 그것은 바르샤바 음악학교에서 비밀리에 녹음되어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민회의 자유유럽방송으로 발송 또는 밀반입된 후 1984년 크리스마스에 폴란드로 다시 송출되었다.^(Orwell 1949, 1984a, 1984b.) 6)

결론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추동된 폴란드인 이주 현상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잠재적 이주자들이 서구 잔류와 귀환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개인적인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에 잔류하거나 폴란드를 떠나는 것은 정치적 저항이 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구에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동구와 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3차 세계대전을 위한 잠재적 군사적 지렛대로 사고되기도 했다. 폴란드로의 귀환은 체제와 새로운 전후 정치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구로의 이주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망명길에 오르게 한 것이 조국 독립의 상실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망명의 일차적인 공동의 목표는 독립의 회복이었다. 궁극적 목표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전쟁 전의 국가 지위와 문화의 자취를 지키고 점령된 조국 밖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때 묻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렇게 보존된 조국의 '진정한' 문화가 주권 회복과 함께 이식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진정한 국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 상상했다. 다른 이들은 극단적 보존이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핵심부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다른 개념 하에서 그들은 민족의 핵심부와 접촉함으로써 철의 장막 양 편에서 동시에 정치적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

이주자의 관점에서 독립이라는 저 정치적 목표는 보존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연속성과 민족적 정체성의 보존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단의 발견을 요구했다. 문화 활동은 민족적 정체성과 융합의 보존에 기여했다. 때로 문화 활동은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폴란드의 대의를 국제무대에 표현할 수단을 제공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보낸 망명정부의 고별사는 망명 동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할 것을 촉구했다. 서구에 망명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구에서 그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나 글은 이 모두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조차 도구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문화와 문학 번역은 독립 추구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서구 세계 곳곳의 이주자 센터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폴란드에도 이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많은 경우 이는 전 세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다.

반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작가인 조지 오웰은 소련 점령국에서 온 난민들이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신이 내린 기회”라고 말한 적이 있다^(Orwell 1947b, 207).⁷⁾ 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문화와 문화의 개입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의 이념과 태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문화와 문학, 또 번역의 정치적 활용은 설령 그것이 도구적이었다 하더라도 보다 평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관심을 갖는 사회를 재비하는 것이었다. 아직 우리 인류가 빈번하게 이주 위기로 이어지는 집단 분쟁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메커니즘을 고안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갈등의 시대에 문화와 문학이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검열을 비롯해 문화와 자유로운 말에 가해진 다양한 정치적 압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향후에도 매우 의미미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 현상 자체가 줄어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주의 인문학은 분명 그 타당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의 대만의 귀신¹⁾

성 메이 마 Sheng-mei Ma

미시건주립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총사령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에 소속된 약 백만 명의 본토 중국 인들과 그 가족들이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의 장 휘하의 공산군으로 넘어갔다. 1895~1945년의 일본 식민지배에서 막 벗어난 대만은 인구의 대부분이 푸젠인과 광둥인, 그리고 명·청조 시기 그 조상들이 대만해협을 건너 이주해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들을 복속시킨 하카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²⁾ 따라서 대만의 역사적 난맥상은 1949년 무기 및 어린 가족들과 함께 국민당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정점에 달한다. 이렇게 밀려든 군인과 민간인들은 일제로부터, 또 원주민 땅을 차지한 남중국 정착자-식민지들로부터 통제권을 인계받은 점령군이었는데? 아니면 전쟁 난민이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둘 모두이거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적합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가?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Literary Translation and Reception as Political Acts”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볼로냐대학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Krystyna Wieszczek은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영어학과 방문학자,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University of Bologna 영어강사, 폴란드 크라쿠프 소재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Ignatianum Academy in Cracow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비에슈첵은 폴란드에서 영어문학학으로 학사 학위를, 스페인에서 번역학으로 석사 학위를, 그리고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에서 영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세기 문학, 번역, 그리고 검열이 주요 연구관심사입니다. 박사 논문은 조지 오웰이 냉전시기 공산당의 검열 속에서 폴란드에서 지하 출간되어 수용되는 과정, 그리고 해외 폴란드인 이주자들 사이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룹니다.